

Sixiang Wang, “Co-constructing Empire in Early Choson Korea: Knowledge Production and the Culture of Diplomacy, 1392–1592” (2015)

Chapter 6 – Conclusion

Chapter 6

A Forged Antiquity: The Tomb of Kija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in Choson Pyongyang

- 평양: 육로를 이용한 모든 중국사신이 지나는 곳 - 조선 정부가 소개해주는 명승지 방문 e.g. 기린굴(동명왕 전설), 단군사당, 기자묘·사당, 단군사당 - 명나라 사신들에게 조선만의 왕조/문화적 계보, 정치적 자주 + 고대로부터의 계통성을 전시
- 조선의 정치에서 역사의 중요성: <조선왕조실록>의 상세한 기록, 필요에 따라 정치적 조작, 명 측의 기록에 이의 제기
- 조선의 정치가들은 중국 패권에 대항해 boundary를 세우는 수단으로 역사를 활용 (Alexander Woodside) - 명나라와 문화적으로 동등하되 정치적으로 독립적임을 주장하기 위해 명나라에게 legible한 패권담론의 언어로 정의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냄
 - 기자를 아이콘으로 사용하여 independent transmission of cultural and moral legitimacy from antiquity를 주장
 - Envoy writing as a social practice connected to physical sites - 사행시문들은 in situ로 쓰여져 모든 글이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 연결 - 각 시수가 “one node in a web of relationship formed with physical monuments”
- 6장: 평양의 기자묘·사당을 중심으로 공간적+문화적 행위의 interplay를 분석

(1) Kija and the Journey East

기자 (箕子)

[네이버 지식백과] 기자 [箕子] (두산백과)

… 하지만 제을(帝乙)의 뒤를 이어 주왕(紂王)이 즉위한 뒤 상(商)은 급격히 쇠락하였다. 주왕(紂王)은 자신의 재능을 과신(過信)하여 신하의 간언(諫言)을 듣지 않았으며, 달기(妲己)를 총애하여 호화로운 궁궐을 짓고 ‘주지육림(酒池肉林)’의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기자(箕子)는 형인 비간(比干)과 함께 주왕(紂王)에게 거듭 간언(諫言)하며 정치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

하지만 주왕(紂王)은 폭정(暴政)을 멈추지 않았으며, 간언(諫言)을 하는 숙부(叔父) 비간(比干)의 충심(忠心)을 확인한다며 몸을 갈라 심장을 끄집어내는 만행(蠻行)을 저질렀다. 사람들은 기자(箕子)에게 상(商)을 떠날 것을 권했지만, 기자(箕子)는 신하된 도리로 임금이 간언(諫言)을 듣지 않는다고 떠나는 것은 임금의 악행(惡行)을 부추키는 것으로 따를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미친 척을 하며 남의 노비가 되려 하였다. 하지만 주왕(紂王)은 그를 사로잡아서 유패(幽閉)시켰다.

주(周)의 무왕(武王)은 충신(忠臣)을 잔인하게 살해한 주왕(紂王)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제후들을 규합하여 상(商)을 공격하였으며, 기원전 1046년 상(商)을 멸망시켰다. 그는 간혀 있던 기자(箕子)를 풀어주고, 그를 찾아가 정치(政治)에 대해 물었다. 기자(箕子)는 무왕(武王)에게 하(夏)의 우(禹) 임금이 정했다는 아홉 가지 정치의

원칙을 전했다고 한다. 이를 ‘홍범구주(洪範九疇)’ 혹은 ‘기주(箕疇)’라고 하며, <서경(書經)>의 ‘홍범편(洪範編)’에 그 내용이 전해진다.

하지만 기자(箕子)는 주(周)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며 상(商)의 유민(遺民)을 이끌고 북쪽으로 이주했다. 당시 기자(箕子)가 상(商)의 멸망을 슬퍼하며 지었다는 ‘맥수지시(麥秀之詩)’에서 ‘맥수지탄(麥秀之嘆)’이라는 성어가 비롯되었다. 일부에서는 기자(箕子)가 한반도(韓半島)로 옮겨가 그 곳에 기자조선(箕子朝鮮)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하지만 오늘날에는 요동(遼東)과 한반도(韓半島) 지역의 청동기가 중국과 크게 다르며, 한(漢) 이전의 기록들에서는 기자(箕子)가 조선(朝鮮)으로 갔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이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Dong Yue (1488 사행): 기자의 조선(Chaoxian), 위만의 왕국, 후대 한국의 조선(Choson)을 temporal continuum으로 봄
 - 조명관계에서 기자의 중요성: 명의 제국적 상상에서 있어 기자는 명이 조선을 문명화 시킨 전례가 됨 (Kija as mythos)
- 한편 이런 점 때문에 20세기 이후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부정됨 e.g. 신채호
 - 기자는 한국사와 대중의 인식에서 삭제, 추방, 대신 단군이 강조됨
 - 사실 기자가 한반도와 관련있다는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는 없음 - 현대에는 만주 지역에 대한 한중 양국 민족주의자(nationalist)들의 고토회복주의(irredentism)와 관련
 - ‘기자 부정은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현대 중국의 주장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한 한국의 민족사를 성립, 기자 긍정은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
 - ➔ 이것은 ‘기자’의 중요성을 좁게 정의하는 것
 - ➔ 조명시대의 기자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로, 조선 정부가 고대 기자와의 연관성을 강화하려 한 것은 중국과는 분리, 독립된 한국의 정체성을 수립하려 한 것

(2) Practice of Space

- 공간적 행위로서 기자 숭배: 조선 정부가 조성한 “a contrived production, a theater of symbols and images produced for a specific audience.”
- 공용경 (명; 1537 사행): 실수로(?) 빈 현판(blank scrolls)을 가져다 줌 - 공용경에게는 스스로의 흔적을 조선에 남길 기회 - 건물의 이름을 붙이거나 비문을 써달라 - 선대 사신들의 전통의 연장 - 의주에서 서울까지 길의 많은 장소들이 명 사신들에 의해 이름 붙게 됨
 - “By leaving traces of his ink, he transformed an empty landscape, “civilizing a “barbarian” landscape through literary craft.”
 - 조선이 “actively abetted this indulgence in self-importance.”
 - “a figurative and literal carte blanche … to satisfy their fantasied as the embodiment of the Ming’s civilizing power.”
 - 이러한 공간적 행위를 통해 한국의 영토를 황제의 사신들에게 legible하게 만들
- 문학적 행위와 동반: 시작, 차운 - 조선에 오는 명나라 관원들이 선대 사신들이 써놓은 시를 읽고 논평, 화답 - ‘황제의 사신단’의 일원이 되는 의식 - 이러한 행위가 관습으로 자리 잡아 “an aura of temporal depth and natural regularity to diplomatic exchange”를 형성
- 실제로 비석, 현판 등을 세워줌/붙여줌으로써 명 사신의 글/글씨가 조선 landscape의 물리적/영구적 일부가 되게 함
- 조선 정부는 적극적으로 명 사신의 눈에 비칠 공간을 조작 - 조선 사람이 쓴 어떤 책이나 글도 명 사신에게 보이지 않도록 지시 - 그러나:
 - 1) 조선정부는 명 사신의 입맛에 맞춰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명나라가 조선의 유일한 civilizer라는 fiction을 견지하기 위해 권력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은 것
 - 2) 문제의 기자의 사당·묘는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었음

- 3) 초시대성(transtemporal): 각 시문은 별개의 공간에 부여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전통의 imagined continuity의 한 요소로 기능함

(3) A Forged Antiquity

조선정부의 이러한 작전에 의해 19세기까지 한국은 ‘기자지국’으로 지칭, 결과적으로 14-19세기의 조선과 고대의 조선이 동일시 됨

조선은 원래 동북아에 있었던 3개 고대국가의 이름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 - 위만조선 외에는 그 실존의 고고학적, 문헌적 근거가 약함

1392년 이성계 조선 건국 - 명나라에 국호 선택을 부탁: 조선 vs 화령 - 명이 ‘조선’을 고른 것은 예측 가능한 선택

앞서 고구려가 기자 숭배 사상이 있었음 - 고구려 멸망 후 고려 숙종(r.1095-1105)이 기자묘·사당을 건설 - 고려의 북방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고구려의 후예 곧 기자조선의 후예를 자처하고자 함 - 당시 거란/요도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여 자기 수도인 요양을 기자조선의 요새로 주장 - 한편 <사기>에 따른 기자묘의 위치는 산동

- 이러한 사료적 불일치로 인해 명 내에서도 조선의 평양 기자 유적에 관해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조선정부는 반박 - 정약용: “많은 사람들이 기자조선의 위치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 명과 조선 모두 ‘기자조선=조선’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외적으로 조선은 기자조선의 후예임을 강력히 주장
- 세종이 문신 변계량(1329-1430)에게 기자묘 비석의 비문을 작성을 명령: “기자는 다른 곳인 아닌 우리의 조선에 책봉 받았다” - 다른 학자들이 반대: ‘민간 전승에 불과하며 문서기록적 근거가 없다’

명 사신들이 계속적으로 기자묘·사당을 방문하고 글을 남기는 행위(e.g. <황화집>)를 통해 유적의 진실성과 더불어 조선의 기자 계승성을 강화함 - 명 사신이라도 여기에 의심을 표하는 것은 선대 및 동료 사신들이 쌓아온 전통에 대항하는 것

조선은 정부 차원에서 <사기>에 추가로 민간, 현지의 증거를 탐색

- 율곡 이이의 <기자실기>: 방법론: “collecting existing materials, but its truth claims primarily relied on what Yi took to be the authoritative appraisals of past ‘sages.’ ... rather than the independent evidentiary merits of their statements.”
- “turning once tenuous claims into historical reality” - 조선의 노력은 중세/근대 유럽 국가들의 로마 계승 주장에 비견

(4) Kija Who Did Not Submit

‘기자가 조선에 봉작 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不臣’의 주어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주어가 주 무왕이면 ‘신하로 만들지 않았다’, 기자면 ‘신하가 되지 않았다’
- 부정적으로는 반역으로 해석하기도 e.g. 수당 시대에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명분

고구려의 정치적 계승자들은 이 문제를 풀어야 했음 - 중국과 동문으로서 인정 받기 + 정치적 자주 보장받기 - <사기>의 유동적 해석

- 변계량: “his will of not being subject to [the new dynasty]” “for over two thousand years owes entirely to the teachings of Kija.” - 기자가 조선을 문명화했을 뿐 아니라 기자 이후로 중국과는 분리된 독립적 계승을 해왔으며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동등함(parity)을 주장 - 기자를 예속의 상징에서 자주와 상응의 상징으로 전환시킴
- 허정(1434-1494): 기자가 (조선의) 봉작을 받은 것은 주의 신하가 되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

- 홍직필(1776-1852): 청의 도덕적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 <사기>가 오류이며 조선의 sovereign ruler였던 기자는 사실 아예 조공하지 않았다고 주장
- 장영(명; 1460 사행): 기자의 덕은 상에 대한 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his commitment to a sense of moral and political order that transcended dynastic interests” “the will of heaven” “理” “if it were not for the [Kija’s] efforts in pacifying the land and guiding its people, how could it have been transformed as thoroughly as this?” “[Kija] brought great benefit to ne region. He turned the barbarians to civilization. … All of these things were the gift of the Central Sate, the Zhou. Ah! How benevolent indeed was the Zhou!” → 조선에서 모든 정치적/역사적/문명적 agency를 배제

기자의 mythos는 획일적이지 않았고 정치적 주장에 따라 변용 - 주나라에 대한 조공과 봉작 + 주에 대한 defiance와 독립성 - 이 둘에 있어 병존하는 두 가지 변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1) 기자의 덕 2) 기자의 조선에서의 활동 -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조선=기자의 땅’이라는 명제를 상정

(5) Postscript

- 평양은 그 자체로 조선의 초시대적 독립 + 중국에 대한 군사적 투쟁을 상징한 공간
 - Qi Shun (1476 사행): 수·원의 군사정벌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나쳤던 것이 실패의 원인
 - 서거정(to Qi): 명의 문덕을 찬양 - 군사정벌 자체가 잘못, 수의 실패와 당의 성공 모두 무의미함
 - 이색(1328-1396): 당 태종은 이미 군사적 성공을 이루었으니 선대의 교훈을 따라 더 이상 자만을 부리지 말았어야 - 군사정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 무왕이 기자를 독립된 군주로 봉한) 고대의 선례를 깬 것이 잘못
- 조선: 文 > 武, 文에 의한 통치만이 정당하다
 - 명 제국의 이분법에서는 야만+독립 vs 문명+복속 - 그러나 조선은 문명+독립을 지향 - 조선에게 기자는 단순히 중화와의 문화적 연결일 뿐 아니라, 조선이 원하는 대로 대안적, 독립적 문명의 전파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용가능한 mythos였음

Conclusion

- 전체 논문의 논지
 - 1) 조선 외교정책의 큰 부분은 중화제국 내 조선의 위치를 변경, 설정하는 narrative를 만드는 것
 - 2) Knowledge of empire를 통해 정치적 비대칭성을 도치, 대명관계에 있어 agency를 발휘
 - 3) Co-construct된 제국: 조선이 스스로를 제국의 전통 안에 interpolate 함으로써, 조선의 정치적 자주를 보전하는 것이 (중화)제국의 도덕적 정당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
- ‘조공’ ‘책봉’ 등이 개념은 조선 정부가 명을 대상으로 사용한 정치적 narrative의 중심요소였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음. 조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을 문명세계(civilized ecumene)에 포함시키되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보전하는 것
- 고전에 대한 명과 조선의 계승 주장은 공존: 양자가 이상화된 정치적 상상(political imaginary)을 의례와 문학적 생산을 통해 다원적, 다의적 담론(polyvalency and polysemy)으로 함께 construct했기 때문 (사회적 행위로서의 외교)
- 그렇다면 조선의 명 제국의 일부였는가 아니었는가? - Yes/No/Neither - 양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

- →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외교가 양자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유지 가능했고, 3자가 개입되는 순간 어그러짐
- 이 관점에서 보면 19세기 ‘조공체제’의 붕괴는 지정학적 변환 뿐 아니라 기호학적 소멸 (semiotic dissolution): 새로운 패권/기술/청자의 출현으로 종래의 지식 관리 기술이 무용해짐
- 현대의 해석: 사대주의가 한국의 근현대사의 비극에 책임 - 남북한과 미/소/중의 관계에도 대입
-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논문은: 조선에게 있어 위계적 관계는 협상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사대는 종속의 이념이라기 보다는 조선의 총체적 정치 전략의 표현으로, 힘의 비대칭을 겉으로 드러내어 명에게 조선을 legible하게 하되 제국을 조종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발전시킨 것
- Ann Stoler의 ‘archive of empire’: 그러나 조선의 사례는 타 근대제국들의 사례와는 달리:
 - 1) ‘주변’이 ‘제국’을 다루는 기술이며, 힘의 비대칭에서 지배자가 아닌 약자 쪽인 지식을 통제 한 사례
 - 2) 이러한 지식 생산의 차원에서 제국은 ‘통치(govern)’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conjure)’졌음
 - 조선이 스스로 제국을 ‘만들면서’ 통계학이나 ethnography 등을 이용한 게 아니라 symbolic manipulation을 이용
- Open question 1. Did it work? 조선의 symbolic manipulation은 성공했는가
 - ➔ 임진왜란 사례
 - 기존 연구는 명이 조선을 방어해준 것이 중화중심적 조공체제의 정상적 작동과 규범성의 증명이라고 보았음
 - 선조와는 달리 조선 신료들도 명이 도와줄거라고 크게 신뢰하지 않았음
 - 명은 또 처음에는 조선은 외국이고 四夷 중 하나일 뿐이라며 도울 생각이 없었음 - ‘이를 도와줄 게 아니라 이이제이를 써야 한다’
 - 명 관원들이 직접 와서 조사해보고 일본과 wartime correspondence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결정을 바꿈 - 200년 동안 조공관계가 있었는데 군사개입을 해줄만큼 신뢰가 없음
 - 명의 石星이 조선을 지지해줌 - 조선 사신들과 석성의 주장은 조선은 ‘예의지방’ + 천자국으로서 충직한 속방을 도울 책임 + ‘순망치한’ 명의 변경에 있어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 → 조선에 대한 개입이 이념적+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행동
 - 조선의 사대외교를 설계한 사대부들은 중국군으로부터 조선을 방어할 생각만 했지 다른 예상치 못한 위협 때문에 중국군을 끌어올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 신라-당 사례를 떠올려 조선도 명의 군사개입을 불편해 함
- 실제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명관계가 전환
 - 명은 대일협상에서 점차 조선을 배제 - 조선분할 협상
 -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의 시,지도,사서,문집,고전편집서 등이 명으로 처음으로 흘러 들어가 조선에 대한 imperial gaze가 질적으로 달라짐
 - 왜란이 끝나고 만주/청이 흥기하여 명에게 조선은 단순히 정치적 무관심, 이념적 중요성이 아닌 전략적 중요성을 띠게 됨
 - 왜란 이후 명이 조선의 왕위계승 문제에도 적극 개입 (광해군 책봉 거부)
 - 조선 입장에서는 만주의 위협 만큼 명의 간섭도 골칫거리가 됨
- Open question 2. 조선은 전통적 제국이념에서 자기 위치를 변화/interpolate하는 데 성공했는가?
 - ➔ 청초 홍타이지의 사례
 - 병자호란에서 조선을 이겼으나 정벌하지 않았음 - 대신 삼전도비를 세워 만주의 정벌을 “august display of martial and civil virtue”로 선언 - 조선을 지배영역으로 들이기 보다는 ‘제국의 전통’의 일부로 남겨놓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
 - 청 제국의 정통성을 다지기 위해 조선의 조공 받는 것이 중요 → 곧, 천자국에 조선이 조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조공을 바치는 곳이 정당한 천자국 - 조선이 독립국이어야 가능

- ‘왜 중국이 한국을 정벌하지 않았나?’
 - 이에 대해 ‘중화의 덕치 덕분에 한반도 국가들이 몇천년 간 생존한 것이 타 제국과는 다른 중화제국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은 ‘the Whig history of Chinese empire’,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역사적 전개는 제국의 이념의 불가피한 결과로 봄)
 - 본 논문: 이러한 인식들은 중국의 민족주의적 주장도 호응하고 있으나 한국이 외교적으로 계속 주장하여 생산한 점이 큼 - 이런 담론들의 ‘진짜 목적’을 파악해야